「죽음의연기」 몰아내는 서구의 금연운동

淨化特輯

흡연 전면금지

핀란드에선 공공장소

담배의 전파는 1942년 콜롬부스의 남미대륙 발견과 그 기원을 같이한다. 당시 신대륙의 원주민들은 콜롬부스일행을 신의 사자로 여겨여러가지 진귀한 물건을 선물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담배의 마른잎 뭉치였던 것. 그러나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이 후 50년동안 담배는 지역을 함해하는 선원들 사이에서 심심풀이로 피워졌을 뿐이다.

1543년 스페인의 한 대학교수는 후세에까지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논문을 발표했다. 담배속에 의학적 효능을 지닌 성분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었는데 이후 그와 비슷한 논문들이 앞다투어 발표되었다. 서구인들이 너도나도 흡연을 즐기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러나 흡연의 역사가 4백년이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 담배는 학의 심판대 위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받게 된다. 담배의 주요성분인니코틴과 타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20년 전쯤에 이르러서는 「담배 유해론」이 정설로 굳어졌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탄받기 시작했다. 최근에 와서는 에이즈(AIDS)와 담배의 관련을 언급한 의학계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담배에 부과되는 죄명의 날이면 날마다늘어나게 되자 금연운동도 자연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 시기는 담배유해론이 정설로 굳어진 20년 전, 초기에는 흡연자들의 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요즘에 와서는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즉 비흡연자들의 협연권으로까지 그범위가 확장되고 있는데, 담배를 먼저 받아들여 전세계로 퍼뜨린 서구인들이 담배를 몰아내는 일에도 극성스럽게 앞장서고 있다.

서구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연운동의 열풍은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특징.

핀란드가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부터 모든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국내선 여객기 안에서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지난해 11월18일 담뱃불이 원인이 된 지하철 화재로 30명이 숨진 참사가 일어났던 영국에서는 런던리버풀시내 지하철구내에서의 흡연을 전면금지시켰다. 벨기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 학교, 우체국, 공중변소등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1만8천프랑(약41만2천원)의 무거운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강력한 금연법령을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흡연규제 외에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캠페인이 병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과 광고에서도 간접적인 흡연억제조치가 뒷받침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담배 한갑 가격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을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여성과 연관된 담배광고가 소비자의 흡연욕구를 부추긴다 해서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1세기까지는 담배없는 세상 만들자」

이같은 금연운동을 가장 먼저 시도한 나라는 스웨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평가에 걸맞게 스웨덴은 이미 61년에 전매 제도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63년에는 금연협회를 만들었는데 73년부터는 국가금연컨트롤프로그램을 만들어 「21세기까지는 담배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거국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치고있다. 현재 스웨덴의 흡연인구는 전체 성인의 30%정도도 이 수치도 오는 90년대에 들어서면 15%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스웨덴의 영향을 받아 지난 72년 핀란드의 주도로 북구라파 4개국이 「금연북구라파위원회」를 만들어 담배광고를 금지시키는가 하면 금연예방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구라파제국은 금연운동의 요람을 오염시킨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키스를 「당신의 결단이필요하다」는 등의 포스터를 이용, 10대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을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담배광고 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않지만 그같은 노력의 결과 담배광고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상태. 덴마크정부는 최근들어 금연교육과 건강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있다.

서독은 비록 북구라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금연북구라파위원회의 참여,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금연운동 우등국, 서독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종 포스터나 팜플렛을 이용, 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이 행해진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등의 담배광고를 규탄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각 주와 시지역 등의 보건소에서 담배로인한 피해사례들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갖는 동시에 학교, 직장, 단체등을 1년에 3주씩 순회하는 이상에서 언급한 나라들은 주로 정부차원에서 금연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비해 영국과 미국은 정부못지않게 민간단체에서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펼치는 대표적인 국가. 그 외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등에서도 민간단체의 금연운동이 활성화돼 있다.

영국의 경우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은이 많다. 왕립과학원과 영국의학협회 등은 물론이고로 버트밀과 로이쇼 같은배우들도 금연단체(Actors Campain Against Tobacco Smoking)를 만들어 활발하게 움직이고있다. 이들은 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펼치면서 정부측에 금연을 촉구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압력단체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연대책을 세우고 있는미국의 경우에도 3천여개의 단체들이 미국암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일관되게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어 유럽의 금연운동가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미국은 특히 각주마다 금연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실천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금연운동 중에는 담배로인한 양의 생물학적 현상을 각 대학의 병리재료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이 있다. 이 박물관에는 폐암환자의 폐, 폐기종환자의 폐, 건강한 사람의폐 등을 비교전시, 흡연자로하여금 담배의 해독을생생히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미국에서는 이들 단체의 활동으로 TV·라디오의 담배광고 금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인상,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소설치등이 순조롭게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남성흡연율은 세계최고

이렇게 날이 갈수록확산되는 구미 각국의 금연운동이 한국에도 상륙을 짓는것은 당연히 담배제조업자들이다. 영국 담배제조업자들을 대변하는 「연초산업 자문위원회」의 한관계자가 『더이상 흡연자가 차별받지 않아야하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같다』며 『흡연자에게 벌금을부과하는 방식은 게슈타포의 냄새까지 느끼게 한다』고 극언한 것으로외신이 전하는 것을 보면 이제 구미의 담배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든 것이틀림없다.

그래서인가. 최근 미국 통상법301조 발동을 운운하며 우리나라에 수입하라고 양담배의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광고조차규제하고 있는 미정부는아마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타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를두고 야당총재를 지낸 어느 국회의원은 「죽음의수출」이라고 규정하기도했다.

그러나 남의 탓만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미국이 기를 쓰고 양담배를 팔고자 하는 것도바로 우리나라가 흡연자의 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기회에 하루에 담배 한갑이상을태우는 헤비스모커들은 금연을 결행,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죽음의 수출」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해 우리의 자존심을세우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실정이다. 한국갤럽은 우리나라 남성흡연률이 세계최고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연운동이 그만큼 활발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연맹에서 금연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불과한 실정. 소비자보호연맹 금연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반드시 금연이 필요한 병원에서조차 공공연히 흡연이 행해지고 있다」며 흡연자들이 금연까지는아니더라도 최소한 공공장소에서만큼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남성흡연율은 세계 최고…

□… 남미대륙 발견과 더불어 전세계에 담배라는…□
▨… 기호품을 퍼뜨렸던 서구인들이 이제 담배를 몰아…▨
□… 내는 데 골몰하고 있다.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
▨… 연 전면금지를 목표로 전개되고 있는 서구의 금…▨
□… 연운동을 살펴보았더니 〈최성록/농민신문 기자〉 …□

핀란드는 금연운동가인 「푸스카」와 「살로넨」 등의 활약으로 72년부터TV를 통해 금연교육과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85년 1월부터 식당이나 오락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키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 71년 정부가 흡연건강에 발족시킨 이래 73년에는 국회에서 담배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까지 발전했다.

한편 덴마크는 「담배는 자살행위다」는 환경 캠페인을 벌이는 등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들 나라에서는 금연운동을 추진하는 보건소에서 담배로인한 피해사례들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갖는 동시에 학교, 직장, 단체등을 1년에 3주씩 순회하는 이상에서 언급한 나라들은 주로 정부차원에서 금연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들은 금연운동 우등국, 서독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종 포스터나 팜플렛을 이용, 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이 행해진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등의 담배광고를 규탄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각 주와 시지역 등의 보건소에서 담배로인한 피해사례들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갖는 동시에 학교, 직장, 단체등을 1년에 3주씩 순회하는 이상에서 언급한 나라들은 주로 정부차원에서 금연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들 나라에서는 금연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불과한 실정. 소비자보호연맹 금연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반드시 금연이 필요한 병원에서조차 공공연히 흡연이 행해지고 있다」며 흡연자들이 금연까지는아니더라도 최소한 공공장소에서만큼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連載 栽培教室

88新規會員을 爲하여

강 = 薑 (생 = 生)

○學 名 : Zingiber Officinale R

○生藥名 : 生薑, 乾薑

○藥用部 : 地下莖

○成 分 : 辛味成分으로 진게롱, 쇼가올, 芳香成分으로 진기베롤, 진기베린 등이 있다.

○効 用 : 芳香性 健胃 矯味, 矯臭藥으로 사용된다. 기타 식용 양념으로 대단히 중요하며 그 소비량이 막대하다.

1、性 狀

熱帶아시아 지방 원산의 생강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中南部 地方에서 흔히 재배되는 宿根性草本이다. 이 식물의 地下莖은 肥厚하고 굴곡을이루었으며 그 색깔은 黃白色이고 옆으로 뻗으며 줄기는 45cm내외이고 잎은 줄기에 두 줄로 갓나게 붙어 있는데 나란히맥(平行脈)이고 披針形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화되는 것이 없지만 열대 지방에서는 8~9월에 꽃대가 올라와서 그 끝에 이삭꽃차례(穗狀花序)로서 黃綠色의 꽃이 된다.

生薑

2、栽 培

①적 : 원래熱帶地方原産이므로 기후상 따뜻함을 좋아하나 너무 온도가높은것도 싫어하며, 섭씨20도내외 온도에서 가장 成育이 잘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中南部 각지에서 재배할 수 있으며全羅北道 完州郡은 그의주산지이다.

土質은 地下水가 상당히 높아서 건조가 잘되지 않는 腐植質이 많은 비옥하고 排水가 양호한 땅에서 가장 잘되며 가뭄이 심할 때에는 물을 댈수 있는 땅이라면 더욱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아궁이에서 불을 때는 방밑에 저장이 되므로 아무리 추워도 움속은 따뜻하여 섭씨 10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습도가과히 높지 않아서 저장이 잘 된다. 근자에는 땅을파고 움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일은 별로 없으며, 방 고래 밑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地下室 같은 곳에 저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③定 植

㉮정식시기 : 서울 지방에서는 4월하순경부터 5월상순경이 適期이며 이보다 일찌기심으면 種根은온도가 상당히 올라가야발아가 되므로 풀이 먼저 자라서 除草만 한번 더하게 되므로 너무 일찌기 심지 말고 서울 지방에서는 5월 초순, 南部地方에서는 4월 하순경에 심는것이 적당하다.

㉯種根의 植付量 : 본포 10a에 대하여 150kg 내외이다.

㉰種根의 處理 : 식부직전에 저장한 움속에서꺼내어 심기전에 種根을우스프론(農藥) 1000배액중에 60분 가량 담구어 소독을 하여 심으면 病害防止에 효과가 있다.

㉱種根의 植付方法 : 땅을 깊이 갈아서 잘 고른 후 골 사이 30cm, 포기사이 24cm 간격으로 손으로 심을 구덩이를깊지 않게 알게 후벼파고 種根의 눈이 위로되게 놓고 흙을 2~3cm정도 덮어준다. 그 위에 썩은 새(舊藁) 외양칚(廐肥) 등을 깔아주어 過乾되는 것과 땅이 단단하여지는 것을 막아 주도록 한다.

④管 理

植付후 4주일쯤 지나면 싹이 나온다. 이 식물은 生育期間중 땅에 습기가 충분히 있어야 잘 자라는 것이므로, 가뭄이 계속될 때에는 될 수있는 한 물을 대어주도록 하고 포기사이에 짚같은 것을 충분히 깔아주는것이 유리하며, 除草는 호미를 깊이 넣지 말고 손으로 풀을 매어주는 식으로 시행할 것이며 이 약초는 連作을 싫어하므로 한번 심은 곳은 4~5년 후에나 다시 심도록 하고 담배 後作으로 심지 않는 것이 좋다.

⑤施肥·病蟲害

이 식물은 多肥性 植物이므로 거름을 많이하여야 한다. 밑거름으로서 堆肥 1200kg, 過石 60kg, 草木灰 100kg을 植付前인 4월 초에 미리 시비하여 갈아 두었다가 약 1개월 후에 다시 갈아서 심도록하여 제1회追肥는 種根이 싹이 터서 약 15일 정도 자란 후에 複合肥料 30kg을 시비하고, 8월과 9월에 두번 더 複合肥料 40kg씩을追肥로 시비하는데 施肥가 작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은 편이다.

病害로서는 잎이 노랗게 되면서 시들고 뿌리가 썩어버리는 腐敗病이 많이 와서 습할 때에 발생하기 쉬우며 豫防法으로는 連作을 피하고 腐敗病에 걸리지 않았던 種根을 심을 것이며, 排水에 유의하고 칼리질 비료를 충분히 할 것이며 또는 發病 염려가 있을 때에는 6식式 보르도액을 1주일마다 5~6회 撒布하여 주면 효과적이다. 蟲害로서는 螟蟲이 줄기속에 들어가서 죽게 하는 수가 있는데 被害를 입은 포기는 캐어서 태워 버리도록 한다.

3、收 穫

7~8월 더위에는 生長이 빠르지 않으나 9월이 되면 생장이 왕성하여지고 뿌리도 많이굵어진다. 처서리가 내리고 줄기가 희끗희끗 말라생장이 停止되는데는 보통 8월 중순경이고 南部地方은 10월 하순경이 適期이다.

調味料로 쓸 때에는 뿌리가 굵어지면 어느 때고 줄기를 붙인 채 수확하여 팔수도 있으나, 藥用으로 쓰려면 앞에 말한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으며 種根用은 리가 맞기 전에 수확하여 저장하여야 덜 썩는다. 10a當 收穫量은 되기에 달렸으나 생강으로서 2000kg내외이다.

4、乾薑調製法

뿌리를 잘 씻어서 적당히 칼로 썰어 통에넣고 물을 부어 문질러껍질을 벗긴 후 물기가발른 것을 물 한말에대하여 석회 0.9ℓ 정도 타서 녹힌 물에 하룻동안 담구었다가 건져서, 이것을 멍석 같은데에 엷게 펼쳐서 陽乾하는데 볕이 좋으면 3주 일쯤이면 완전 건조된다 乾燥率은 15~20%내외이고 製品은 굵고 희며 매운기가 많은 것을 品으로 알아준다.

5、摘 要

생강은 약용으로 日本産 乾薑을 수입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고 調味料로 많이 쓰일 뿐만아니라 片薑 또는 生薑茶로도 많이 소비될 수있는 등 여러모로 쓰이는 생약인데 근간에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